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청소년 외교관' 43명 위촉 국제교류 나서

고창군 청소년 43명이 '청소년 외교관'으로 위촉돼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으로 지역 홍보에 나선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외교관 위촉식'이 열렸다. 위촉식은 학생 대표 3명의 합동 선서, 위촉장 수여, 심덕섭 군수의 덕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짐했다.

고창군 청소년 외교관은 고창고, 고창북고, 전북인공지능고 재학생 43명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외교관들은 온라인 채팅, 이메일 주고받기, 고창군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창이 가진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된다.

특히 고창군과 국제자매우호도시(중국 조장시, 일본 사만토정, 말레이시아 미라시)간의 우호도 다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해경,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음주 시 과태료 부과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카약·키누·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거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카약, 키누, 서프보드 등을 조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생덕 서장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고 위험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동보장구 넘어지면 자동 알림'

정읍시, IoT 기반 '이동약자안전망' 가동

정읍시가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이동약자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을 위한 '스마트 이동약자 안전서비스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동보장구에 특수 센서가 장착돼, 이용 중 넘어짐이나 급가속 급정거 등 불발상황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정읍시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상황이 알려진다. 센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즉시 알람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 119 신고 등 신속한 상황 조치를 위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적된 전동보장구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의 도로 환경 개선·안전 대책 확보 등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우선적으로 시에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200명을 대상으로 구축된다. 시는 앞으로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

는 시민들의 이동권 제한을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서비스를 위해 무선 자가방(LRaWAN) 기반의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해 향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안전·환경·복지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그 어떤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MZ세대 공무원과 '브런치 토크'

격의 없는 소통 '눈길'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27일, MZ세대 신규 직원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브런치를 함께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두 번째 브런치 소통·공감 토크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젊은 공직자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조직 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군무 연수 1년 미만의 신규직원 14명과 시장이 함께한 이날 자리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4월 열렸던 첫 번째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만큼, 신규직원들은 한층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직 생활에 대한 소감부터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업무 중 겪는 고충까지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답변과 함께 선배 공직자로서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참석한 신규 직원들은 시장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



이학수 정읍시장이 MZ세대 신규 직원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브런치를 함께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두 번째 '브런치 소통·공감 토크' 시간을 가졌다.

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래

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66개 버스정류장 대대적 정비공사 본격 시작

고창군이 6월부터 성내면 30개소, 공음면 17개소, 대신면 19개소 등 총 66개 버스정류장에 대한 정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약 9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버스정류장 내 노후된 시설의 재도색, 훼손 및 파손된 정류장 재설치, 유리창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가 시행된다.

고창군의 버스정류장에는 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31대의 버스가 일평균 약 2800회에 달하는 승객을 운송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 이용 비율이 약 65%에 달해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정류장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창군 농어촌 버스는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일반인은 1000원, 학생은 500

원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를 통해 고창군의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

권익현 부안군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 동참

권익현 부안군수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목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 참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지목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부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부안군 투표율이 전복을 넘어 전국에서 투표율 1위가 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



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부안군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사전투표소 13개소, 본투표소 2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자체 합동평가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정읍시가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AI 기반 행정 도입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2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성지표를 담당하는 팀장·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성과 제고 컨설팅'을 열었다. 이번 컨설팅은 평가 지표 중 정성 영역의 완성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 위한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와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는 총 73개 지표 중 정량 65개, 정성 8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이날 컨설팅은 전북대학교 신기현 명예교수를 초빙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로 각 지표별 추진방향과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챗GPT를 활용한 우수사례 요약서 작성법 등 인공지는 기반의 디지털 행정 실험도 함께 진행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춘 교육이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컨설팅은 전문가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담긴 유익한 자리였다"며 "제시된 조언을 적극 반영해 정성지표 성과를 높이고,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평가지표별 추진상황 보고회와 담당자 교육, 월별 실적 점검을 통해 합동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보고회를 열고 지표별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민원콜센터 소통 간담회 개최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7일 민원콜센터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콜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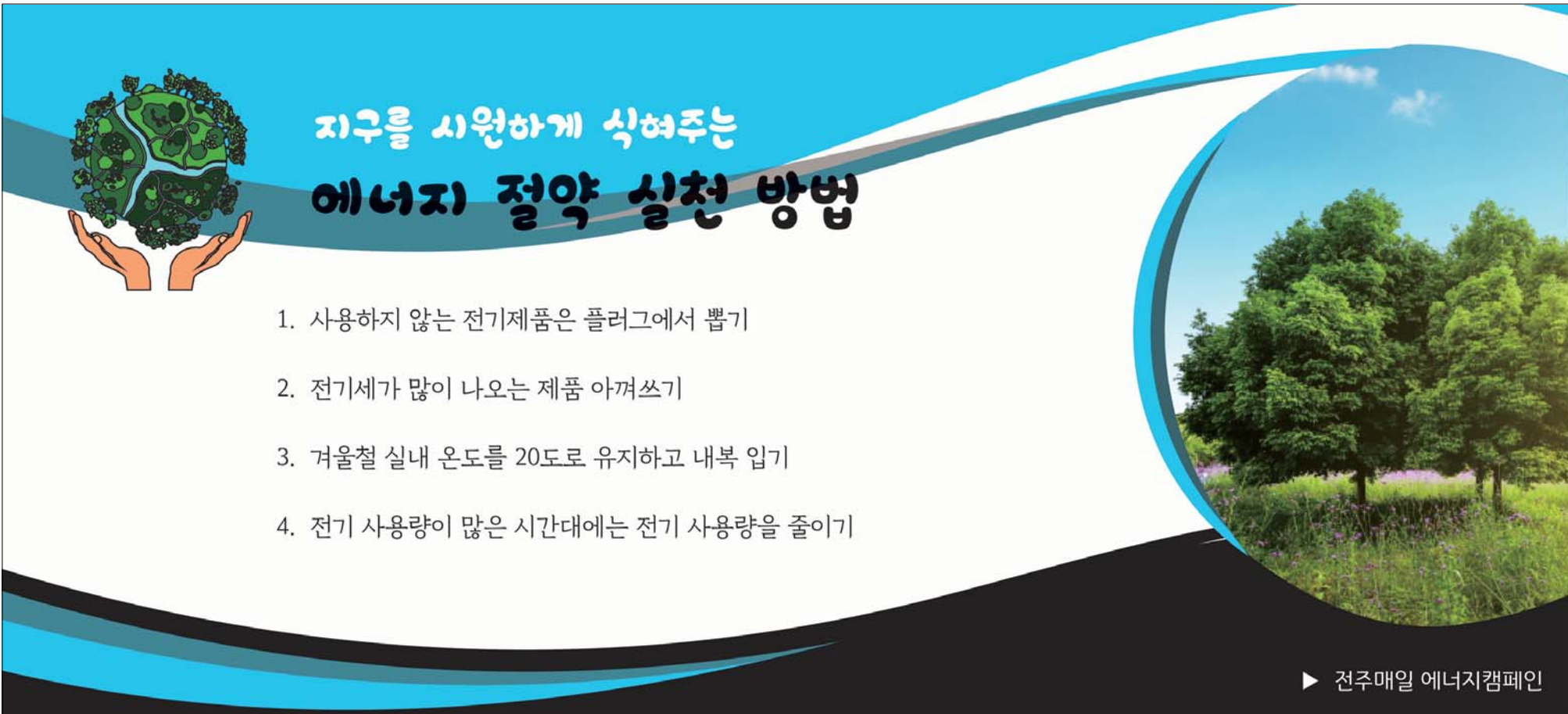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서 권익현 군수는 "민원콜센터는 기관과 군민을 잇는 중요한 창구이며 센터 직원들의 친절함 응대와 전문성이 기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센터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

접 듣고 함께 고민하기 위한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근무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민원 응대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권익현 군수는 이를 경청하며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민원콜센터 근무 환경 개선 및 민원 응대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